

망가진 임플란트,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박 정 철 / 효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는 높은 장기 생존율을 보이는 예지성 높은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임상에서는 다양한 기계적 및 생물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잡한 재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가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망가진 임플란트' 상황에 대해 실제적인 해결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계적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나사 파절(screw fracture), 어버트먼트 파절(abutment fracture), 임플란트 파절(implant fracture), 그리고 보철물 파절(prosthesis fracture)에 대한 임상적 처치 방법과 재치료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합병증인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의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 접근, 비외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의 선택 기준, 그리고 임플란트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적 판단 기준을 실제 증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문제 상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발생 시 임상가가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플란트 치료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임상 전략을 제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중앙보훈병원 구강외과 인턴, 레지던트
- * 대한구강악안면 임플란트 학회 이사
-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G10 IDEA 글로벌 임상교육센터 디렉터
- *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
- * 현, 효치과의원 원장